



現在는 보잘것 없는 寒寺로 되어 있다. 舍利塔은 이 草堂寺

西쪽의 숲속에서 있으며 黑大理石製全 高七尺八寸이다.

最下에는 方形臺 石이 있고 그 위에

須彌山을 表現한 圓 形臺石이 올라가고

그 上部는 二段으로 되어 鼓腹石같은 形態를 이루고 그 위에 緣한 中臺 石은 雲唐草文을 陽刻하였고 다시 그 위에 塔身石이 있는데 八角形塔 身에는 前面에 門扉가 그 左右에 格子窓이 새겨 있다. 그리고 그 다음

二面은 無文 다음 二面에는 格窓이 또 나타난다. 그리고 앞에서 보면 門 扉形과 같은 面이 되는 最後面에는 姚秦三藏法師鳩摩羅什舍利塔이라는 銘이 있다.

塔身 위에는 簷각지붕이 있고 그 斗栱部에는 佛畫가 陰刻되었으며, 지붕 위에는 欄干을 돌린 露盤위에 蓮華를 새긴 寶輪이 있다.

그런데 앞에 말한 塔身石 空間面에 北宋政和七年(一一一七年)에 여기를 訪問한 權邦彥의

鳩摩羅什之舍利塔 權邦彥□□□□親來 禮而作偈言 丁酉仲秋晦大士入 東土

云云의 刻銘이 있어 이것이 政和七年以前作이 確實하며 報告者인 足立氏는 下臺石의 山形이 玄宗의 石臺孝經(西紀七四五年)의 碑蓋石上의 山形과 一致하며 雲唐草文도 兩者가 같고 또 西紀八四一年의 玄秘塔碑의 碑蓋의 雲文과도 通하는 點이 많아 이 舍利塔을 八世紀乃至 九世紀 頃의 中唐作品으로 보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랜 舍利塔은 廉居和尚塔(七九〇年)인데 年代로 보면 彼此 비슷한데 形式上으로는 塔身의 八角形인 것과 三段으로 된 基

本構造는 通하나 細部에 있어서 差異點이 있다. 우리 것은 지붕도 八角 이고 臺石部가 모두 八角이다. 그리고 蓮瓣과 眼象이 基本장식이 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 羅末의 例——雙峰寺 澈鑑禪師浮圖같은 것은 亦是 八角이기는 하지만 下臺石에 唐塔같은 雲文이 새겨지며, 甲寺浮圖에서는 거기에 龍文이 섞여지고, 高達寺址浮圖에서는 龍이 立體的으로 머리를 들고 龜頭처럼 나오고 있다.

우리 나라에는 이렇게 八角蓮文式舍利塔과 八角雲龍文式舍利塔의 두개의 潮流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오랜 것이 西紀七九〇年이고 그 이전에 올라가는 것이 없고 보면 八世紀쯤해서 中國式舍利塔의 아이디어가 들어왔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新羅의 工匠들이 八角塔身 밑에 在來式의 佛臺座形式을 變化시켜 添加해서 하나의 韓國式舍利塔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된다. 또 中國式을 따른 山雲文式에 있어서도 龍을 加하고 또 八角形이라는 基本形을 忘却하지 않은 한편 雲龍文 自體를 自體內에서 變化시켜 마침내 純韓國式形式으로 끌어 갔다고 할 수 있다.

完州 高山面 小向里的 石佛

鄭 永 鎬

全北 完州郡 高山面 小向里의 大雅貯水池 入口部落 발가운에서 坐像一 軀를 調査한 바 있다. 洞民들 말에 依하면 옛날에 이 一帶가 大利이였 다고 하는 바 現在 周邊밭에는 瓦片이 散在하고 石塔材等 其他 石片이 破損되어 있는 點으로 보아도 곧 廢寺址임을 짐작할 수 있으나 이에 關한 記錄은 없다. 佛像은 花崗石材로 結跏趺座하였는데 頭部는 缺하였다. 法衣는 右肩偏袒인데 어깨의 衣褶은 한 겹 뒤집혀져 左腕을 거쳐 膝上을 덮었으며 胸前에서 내려진 衣紋은 右膝上에 그대로 線刻되었고 坐像背面 에도 衣紋이 보인다. 手印은 右手는 完全하여 곧 觸地印임을 알 수 있는



데 左手는 破損된 것
을 洞民들이 「세멘
트」로 後補하여 現
在는 臍前에 五指를
퍼서 內掌하였기 때
문에 本然의 印相은
識別하기가 困難하
다. 兩쪽 발은 左右
무릎위에 露出되어
있는 바 足指가 完全

하다. 實測値는 現高(頭部缺) 六九cm 肩幅 四九cm 胸幅 三六cm 膝幅 七
九cm이다. 비록 頭部를 缺하여 全體의 優雅한 尊容과 相好를 알 수
없으나 右肩으로부터 右腕 手印에 이르기까지의 溫柔한 彫刻手法과 各
部가 流麗하며 堂堂한 樣式으로 보아 年代는 羅末麗初로 推定되었다.
現在 佛像은 本來의 座臺를 缺하고 他石材를 利用하여 그 위에 奉安되었
는바 塔材로 보이는 平面一石을 下臺로 하고 그 위에 竿石으로서 塔身一
石을 놓았으며 또 一枚의 平面石으로 座臺를 삼았는데 上·下石은 破損
이 甚하고 아무런 彫飾이 없다. 中間竿石으로 놓여진 一石은 곧 方形塔
身으로 推定되는 바로 高 四九cm 幅 五一·五cm이며 各面에 幅 九·五cm의
兩隅柱가 刻出되었다. 여기서 特히 注目된 바는 그 一面의 兩隅柱間地
(幅 三三cm)에 있는 彫刻이다. 卽 蓮花座위에 坐像을 陽刻하였으나 磨損
으로 尊名은 分揀하기 어려운데 圓形의 頭·身光이 있으며 二條線으로
身光을, 一條線으로 頭光을 表現하고 있는 樣式은 매우 重要視되며 그 彫
刻手法으로 보아 石佛과 同代의 佳作으로 推定된다. 아울러 이곳에 또
있을 塔材와 寺址의 再調査를 期待하는 바이다. 이 調査는 一九六二年
十二月下旬 同人 몇 분과 함께 全北踏查時에 이루어졌는데 當時 特히 現
地案内에 諸般便宜와 助言을 주신 全州地方法院의 黃冕周氏께 感謝를
드린다.

迎日郡 杞溪面出土 無文土器

金正基

慶北 月城郡 安康邑으로부터 迎日郡 杞溪面의 거의 中心部를 西北方
으로 溯及하는 兄山江支流를 境界로 하여 北은 標高 七六二m인 飛鶴山
의 南麓과 南은 標高 八〇七m의 雲住山의 北 및 東麓一帶에 南方式支石
墓가 數十基 群在한다는 것은 이미 洪思俊氏에 依하여 新聞紙上에 發表
된 바 있었다.

今般 國立博物館에 依하여 이 支石墓群에 對한 發掘調査가 實施되었
을 때 偶然히 完形의 無文土器 入手하였다. 이 土器가 支石墓를
築造한 時代의 것으로 생각되며 出土地가 確實하고 그 附近의 支石墓와
의 關係 位置가 뚜렷하기 때문에 여기에 紹介하려 하는 것이다.

出土地는 杞溪面 柵丹洞八二七의 一番地이며 現在는 水田으로 되어 있다.
이 곳은 安康邑에서 兄山江支流를 건너 杞溪面으로 가는 버스道路 北邊
이며 柵丹洞部落 北쪽에 있는 三基의 支石墓에서 約四〇〇m 南쪽의 좀
낮은 地帶로서 道路를 건너 南쪽 約二五〇m에는 河川이 있다. 出土狀
態는 當時 發掘者인 崔俊植氏(그 水田의 主人이며 柵丹洞部落에 居住함)
의 말에 依하면 水田의 一部分이 좀 높았기 때문에 耕作에 不利하기에
整地하려고 높은 部分의 흙을 除去하였을 때 地表下 約二〇cm에서 많은 赤
褐色土器의 破片이 若干의 木炭片과 함께 出土되었고 그 部分의 바닥흙
은 直徑 約五〇cm의 範圍에 黑褐色의 단단한 燒土面이 있었고 이러한 곳
이 다시 五·六m 떨어진 곳에서도 發見되었으며 이 土器는 그 중 한 곳
에서 出土된 것이라 하고 現地는 지금은 完全히 平坦하게 整地되었으나
燒土部分은 아직 그 痕跡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筆者는
이 곳이 아마도 支石墓를 營爲한 部族들의 住居址의 一部라고 생각하여
直接 그 現場을 調査하려 하였으나 崔氏의 支障으로 同行이 不能하여 대